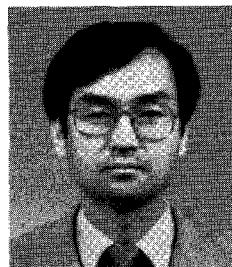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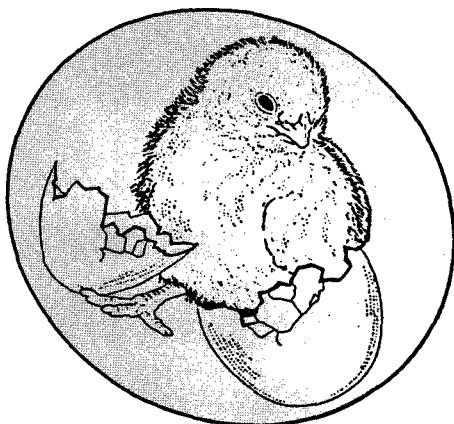


# 올 여름에 발생이 우려되는

## 질병예방 대책



동 희 조

롱프랑 코리아(주)  
롱메리유 한국담당 부장

**본** 고는 최근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닭의 질병과 시기적으로 문제가 되는 류코싸이토준병 등에 대하여 양계장에서 직접 닭을 사육하는 분을 위해 소견을 말씀드리는 바이며, 본인의 작은 경험 및 지식이 사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 1. 대장균 감염증

대부분의 경우 관리가 소홀한 양계장 일수록 많이 발병되며, 어린 병아리에 잘 발병된다. 대장균은 소화기관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세균

으로 닭의 배변을 통하여 배출된다. 때문에 주위의 분변, 물, 사료 그리고 바닥에 항상 오염되어 있다. 만약 닭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입주시 수송, 백신접종 및 중추입식 등 과정에서 닭의 저항력이 떨어지게 되면 주위의 대장균증 병원성을 지닌 대장균이 감염되어 질병이 발생하게 된다. 감염은 호흡기도를 통하여나 항문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감염되는 기관에 따라 증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기낭염은 흔히 접하는 대장균증으로 만성호흡기질병(흔히 CRD라함), 전염성 기관지염, 뉴캣슬병 등과 같이 발병되는 예가 많다. 감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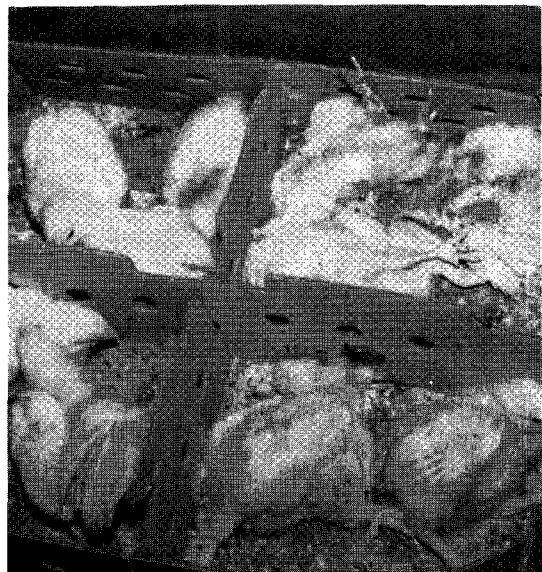
은 복부기낭과 간, 심장 같은 내장기관으로 확산되며 계균은 성장이 지연되고 심한 경우 폐사가 나타난다. 대장균성 패혈증은 급성으로 오는 경우가 많으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직후 나타난다. 이 질병은 갑자기 시작되며 감염 계균은 매우 침울하고 움직이는 것을 싫어한다. 뚜렷한 증상없이 건강한 닭이 갑자기 죽을 수도 있다.

장염은 사전에 콕시듭증 등으로 소화기관이 손상을 받은 후 발생한다. 설사로 인하여 탈수가 되어 쇠약한 계균이 된다. 수란관염은 생식 기도에 감염되는 경우로 성계에 발병된다. 감염된 닭은 자세가 불안하고, 패혈증의 증상을 나타낸다. 난포가 감염되어 복강에 떨어져서 복막염을 일으키기도 하며, 종계가 감염시 종란오염으로 인하여 부화율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대장균 감염증은 주로 입후후 1개월이내에 가장 많이 발생되며, 특히 스트레스가 심한 백신접종후(뉴캣슬 백신, 전염성기관지염 백신 등) 종종 나타난다. 따라서 백신접종시 스트레스를 최소화 시키거나 접종전후 약품투여로 대장균의 감염을 막을 수 있다. 여름철 양계장내에 소독약을 자주 뿌려주는 방법도 권장되며, 대장균에 감수성이 있는 약제(플루메킨 등)를 크리닝목적으로 투약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주기적으로 투약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 2. 감보로병

최근 가장 두드러지게 발병이 심한 질병으로 계절과 관계없이 다발하고 있다. 강독형 감보로병의 출현으로 전국에서 발생되었으며, 농장



에 따라 폐사율이 30~40%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 병의 바이러스는 생존력이 아주 강한 편으로 오염된 계사를 비워둔지 4개월 후에도 살아있을 정도이다. 비교적 효과가 있는 소독 약품으로 0.5% 포르말린 및 요오드제제 등이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원인바이러스는 분변과 함께 배설되어 깔짚, 사료, 물, 기구 등에 감염되어 전염되고 있다.

임상증상은 감염시기에 따라 그 차이가 심하다. 2주령 이하인 병아리가 감염되면 별다른 증상은 나타내지 않으나 F낭(감보로병 바이러스의 공격목표)이 소멸되어 면역억제기능이 심하게 나타난다. 반면에 2주령이상 특히 3~8주령에 감염되면 증상은 보다 뚜렷해지고 피해도 크나 면역억제기능은 약해진다.

이 병에 감염된 닭은 대체적으로 흰색의 설사변과 함께 깃털이 꺼칠해지고 사료를 먹지 않

고, 다른 닭들과 떨어져 웅크리고 있으며, 서로 항문을 쪼기도 한다.

가장 보편화된 면역방법으로 종계에 사독백신을 접종하여 그 종계가 생산한 항체를 난황을 통해서 부화된 병아리에 전달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모체이행항체는 병아리에 대한 방어책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것은 모계의 면역수준이 균일하고 좋은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므로 많은 경우에 있어서 모체이행항체가 100% 방어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최근의 감보로 바이러스는 높은 모체이행항체라 하더라도 감염되고 있다.

따라서 병아리에 백신을 접종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백신은 기존 사용되어온 약독주는 더 이상 방어를 못하고 있으며, 새롭게 중간독 백신만이 방어를 하고 있다. 백신접종프로그램으로는 1일령(혹은 4~7일령), 1주령 혹은 2주령, 3주령, 4주령 등 2회이상 접종하여야 하며, 현재 발병중인 농장에는 감보로 오일백신을 1/3 혹은 1/2 용량을 생독백신과 함께 7일령에 접종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3. 뉴캣슬병

국내 대표적인 닭의 질병 격인 뉴캣슬병은 매년 발병되고 있으나 올해는 좀더 심하게 발생되리라 예측이 되고 있다. 이는 백신의 사용량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온 바, 최근의 백신사용량이 국내수요량의 1/3에도 미치지 못한다 하니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호흡기증상과 함께 녹변을 보이며, 계군에 더러 목과 날개 혹은 다리에 마비증상을 보이

기도 한다. 그러나 요즈음 이 병의 증상은 전형적인 증상과는 달리 증상없이 지나가다 산란율에 차이를 나타내며 드물게 목 등에 마비증상을 보이는 경우를 흔히 접하게 된다.

최근에 감보로병의 전국적인 발병은 이 뉴캣슬병의 발병을 부추기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백신의 불충분한 접종역시 이 질병의 위험신호이다.

이 질병의 전파는 공기를 통하여 전파 되거나 이미 감염된 닭의 사체의 처리과정 등에서 다른 계군에 전파될 수 있다. 그리고 농장을 출입하는 많은 차량, 사람, 기구 등이 전파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는 이 병의 예방은 소독과 함께 보험의 개념으로 백신접종만이 유일한 예방방법이다. 백신으로는 B<sub>1</sub>균주와 Lasota균주가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이 외에 백신 부작용을 줄이고 면역원성을 높인 VG주도 보급되고 있다.

현재 발병중인 농장 혹은 최근 발병경험이 있는 계군에는 뉴캣슬오일백신의 1/3용량을 7일령 전후의 병아리에 생독백신과 동시에 접종하는 방법이 권장되고 있다.

### 4. 류코사이토준병

여름철을 중심으로 산란계에 산란저하 및 연란 파란의 증가와 동시에 녹변이 나타나며, 주증상인 조직의 출혈과 빈혈이 나타나는 질병이다. 육계의 경우도 빈혈로 인하여 성장이 지연되고 있다.

이 병은 주혈포자충류에 속하는 류코사이토준이라는 원충이 닭의 혈액속의 적혈구나 백혈

구에 기생함으로써 발생한다.

전파는 닭겨모기가 감염된 닭으로부터 흡혈할 때 류코사이토준 원충이 닭겨모기의 몸으로 들어와 다시 정상 닭을 흡혈할 때 이루어진다. 이 닭겨모기는 25°C에서 가장 활동적으로 움직이며, 15~30°C 범위에서 적응하며 서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6월에서 9월까지 발생되며 추풍령 이남지방외에 경기도에서도 발생되고 있다.

이 질병은 때때로 출혈 및 빈혈소견 녹변증상, 산란율의 감소, 난각질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다른 질병과 혼돈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의심되는 계군은 주위의 수의사에게 실험실진단을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사료회사에서는 발생시기에 맞추어서 썩시듬 예방목적과 함께 크로피돌 등을 육계사료 및 산란계·종계사료에 혼합 투약하고 있으며, 농장에서는 류코사이토준병 발생시 설파제 등을 투약할 수 있다. 그러나 발병중인 농장에 약품을 쓸 경우 계속적인 발병과 폐사는 막을 수 있으나 산란율의 회복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본 질병 발생에 대해서는 치료보다는 예방의 단계에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하며 또 한 농장에서 닭겨모기의 성충 및 유충을 방제하기 위하여 약제살포 및 유인등 등을 설치하면 큰 도움이 되리라 본다.

이상과 같이 올해 문제가 심하게 느껴지는 몇가지 닭의 질병에 대하여 상세하진 못하나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해 보았다. 치료보다 예방이 우선이므로 평소 소독과 백신접종 만이 질병대책으로 최선이라 생각됩니다.

## ■ 향후 선거관계 주요일정

일정	내용
선거일전 180일 • 지선 : '94. 12. 29 • 국선 : '95. 10. 14 • 대선 : '97. 6.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 단체 또는 시설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정당 또는 후보자 명의의 선전금지</li> <li>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설치 금지</li> <li>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거나,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도화 등의 배부·계시 등 금지</li> <li>기부행위의 제한</li> <li>※ 확대당직자회의, 당원교육에서의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통상제공 범위 규정</li> <li>당원단회대회 개최장소 등 제한</li> <li>개최장소·고지벽보·고지내용 등 일정 범위내로 제한</li> <li>통상적인 식사·다과·떡·음료(주류제공 제외)의 제공, 교재·정당홍보물 제공 가능</li> </ul>
선거일전 120일 • 지선 : '95. 2. 27 • 국선 : '95. 12. 13 • 대선 : '97. 8.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강·정책의 신문광고 제한: 정당의 중앙당이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총 80회 이내</li> <li>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의 제한</li> <li>개최장소·고지벽보·고지내용 등 일정 범위내로 제한</li> <li>통상적인 식사·다과·떡·음료(주류제공 제외)의 제공, 부득이한 교통편의 제공, 생값의 배지·마스크트 제공 가능</li> </ul>
선거일전 90일 • 지선 : '95. 3. 29 • 국선 : '96. 1. 12 • 대선 : '97. 9.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무원등의 입후보시 사직기한</li> <li>※ 최초 단체장선거 입후보의 경우는 후보자 등록 신청개시일까지 사업, 단, 당해 단체장은 90일전 사업</li> <li>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와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소장 등에 취임시 사직기한</li> </ul>
선거일전 60일 • 지선 : '95. 4. 28 • 국선 : '96. 2. 11 • 대선 : '97. 9.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표용지와 유사모형의 여론조사와, 후보자 또는 정당명의 여론조사 금지</li> </ul>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 • 지선 : '95. 5. 12 • 국선 : '96. 2. 25 • 대선 : '97. 10.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원 단합대회 개최 금지</li> <li>확대당직자회의(통·리와 자연부락의 남·여 책임자급 또는 청년책임자급 이상의 간부참석)의 개최는 읍·면·동별로 1회 가능</li> <li>당원교육의 금지</li> </ul>
선거일전 30일 • 지선 : '95. 5. 28 • 국선 : '96. 3. 12 • 대선 : '97. 11.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의정활동보고의 제한</li> <li>선거비용제한액과 국가의 무담비용공고</li> </ul>
선거일전 22일 (대선 28일) • 지선 : '95. 6. 5 • 국선 : '96. 3. 20 • 대선 : '97. 11.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거인명부작성기간 개시(5일이내)</li> </ul>
선거일전 16일 (대선 22일) • 지선 : '95. 6. 11 • 국선 : '96. 3. 26 • 대선 : '97. 11.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거기간개시일</li> <li>후보자등록신청개시(2일간)</li> <li>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간까지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공표 금지</li> <li>통상방법이외의 정당기관지 발행·배부 제한</li> <li>선거기간중 당원모집이나 입당원서의 배부 금지</li> </ul>
선거일 • 지선 : '95. 6. 27 • 국선 : '96. 4. 11 • 대선 : '97. 12.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거운동금지</li> </ul>